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 경기 일정

총목 : 15개 102개 세부종목 / 대한민국 선수 : 144명

일	월	화	수	목	금	토
<p>4</p> <p>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29)</p>	<p>5</p> <p>스켈레톤 윤성빈(24)</p>	<p>6</p> <p>스피드트랙 심석희(21)</p>				
<p>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컬링 믹스더블 예선 7 예선: 오전 9:05~11:00 ● 스피드보드 남자 슬로스타일 결승 ● 피겨스케이팅 팀이벤트 ● 알파인스키 남자 활강 ● 크로스컨트리스키 남자 스키애슬론 ●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0m ● 루지 남자 싱글 3-4차 주행 ● 바이애슬론 남자 스프린트 ● 프리스타일스키 여자 모글 결승 	<p>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컬링 믹스더블 4강 1, 2 4강: 오전 9:05~11:00 ● 피겨스케이팅 팀이벤트 ● 알파인스키 여자 대회전 ● 스피드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예선 ● 프리스타일스키 남자 모글 결승 ● 바이애슬론 여자 남측적 여자 ● 루지 여자 싱글 1, 2차 주행 ● 아이스하키 여자 예선 스웨덴전 ●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500m ● 스키점프 여자 노닐링 개인 결승 	<p>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컬링 믹스더블 3-4위전, 결승 3-4위전 ● 스피드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승 ● 알파인스키 남자 복합 ● 스피드보드 남자 하프파이프 예선 ● 크로스컨트리스키 남-여 스프린트 클래식 ● 스피드트랙 여자 500m 결승 ● 스피드트랙 남자 1000m 예선 ● 루지 여자 싱글 1, 2차 주행 ● 아이스하키 여자 예선 스웨덴전 ●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 	<p>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컬링 남자 예선 1, 2 예선 ● 피겨스케이팅 페어 스프 프로그램 ● 스피드보드 남자 하프파이프 결승 ● 알파인스키 여자 회전 ● 노르딕복합 남자 개인 ● 아이스하키 여자 예선 일본전 ● 노르딕복합 남자 개인 ●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 ● 바이애슬론 여자 개인 ● 루지 여자 싱글 3-4차 주행 	<p>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컬링 여자 예선 2, 3 예선 ● 스텔레톤 남자 1-2차 주행 ● 피겨스케이팅 페어 프리스케이팅 ● 크로스컨트리스키 여자 프리 ● 프리스타일스키 여자 에어리얼 예선 1-2 ● 바이애슬론 남자 개인 ● 프리스타일스키 여자 에어리얼 결승 ●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0m ● 스텔레톤 여자 1-2차 주행 ● 루지 팀 계주 	<p>16</p> <p>설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컬링 여자 예선 4, 5 남자 예선 4-5 ● 스텔레톤 남자 3-4차 주행 ●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스프 프로그램 ● 프리스타일스키 여자 에어리얼 결승 ●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0m ● 스텔레톤 여자 1-2차 주행 ● 스키점프 남자 라지릴 개인 예선 	<p>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스타일스키 여자 슬로스타일 예선 ●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 아이스하키 여자 4강 진출전 ● 프리스타일스키 여자 슬로스타일 결승 ● 컬링 남자 예선 6, 여자 예선 6 ● 아이스하키 여자 4강 진출전 ● 바이애슬론 여자 단체출발 ● 스텔레톤 여자 3-4차 주행 ● 스키점프 남자 라지릴 개인 결승
<p>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스타일스키 남자 슬로스타일 예선 ● 알파인스키 남자 대회전 ● 아이스하키 여자 순위결정전 ● 프리스타일스키 남자 슬로스타일 결승 ● 컬링 여자 예선 7, 남자 예선 8 ● 크로스컨트리스키 남자 계주 ●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출발 예선 ●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 봅슬레이 남자 2인승 ● 바이애슬론 남자 단체출발 	<p>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컬링 여자 예선 9, 남자 예선 9 ● 스피드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예선 ●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 스프 예선 ● 아이스하키 여자 4강 ●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 봅슬레이 여자 2인승 ●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 바이애슬론 남자 단체출발 ● 봅슬레이 서영우(27) 원윤종(33) 	<p>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컬링 남자 예선 10, 여자 예선 10 ●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 프리 예선 ● 프리스타일스키 여자 하프파이프 결승 ● 아이스하키 남자 플레이오프 ● 프리스타일스키 남자 하프파이프 예선 ● 노르딕복합 남자 라지릴 개인 ● 스피드트랙 여자 1000m 예선 ● 스피드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 ● 바이애슬론 혼성 계주 ● 봅슬레이 여자 2인승 ● 노르딕복합 남자 개인 	<p>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컬링 여자 예선 11-12, 남자 예선 12 ● 프리스타일스키 남자 하프파이프 결승 ● 아이스하키 여자 결승 ● 스피드트랙 남자 500m 결승 ● 컬링 남자 4강 ● 바이애슬론 여자 계주 ● 크로스컨트리스키 여-남 팀 스프린트 프리 ● 스피드스케이팅 여-남 팀출발 결승 ● 봅슬레이 여자 2인승 	<p>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파인스키 남자 회전 ● 프리스타일스키 남자 하프파이프 결승 ● 아이스하키 여자 결승 ● 스피드트랙 남자 500m 결승 ● 컬링 남자 4강 ● 바이애슬론 여자 계주 ●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 ●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 바이애슬론 남자 계주 	<p>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피드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승 ●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 컬링 남자 3-4위전 ● 아이스하키 남자 4강 ●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 ● 컬링 여자 4강 ● 바이애슬론 남자 계주 	<p>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봅슬레이 오픈 4인승 ● 스피드트랙 남자 하프파이프 결승 ● 컬링 남자 3-4위전 ● 크로스컨트리스키 남자 단체출발 클래식 ● 스피드스케이팅 남-여 스프린트 ● 아이스하키 남자 3-4위전
						<p>25</p> <p>폐회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컬링 여자 결승 ● 피겨스케이팅 갈라 ● 봅슬레이 오픈 4인승 ● 아이스하키 남자 결승 ● 크로스컨트리스키 여자 단체출발 클래식 ● 폐회식

■ 한국 골든데이는 언제?

10일(토)	11일(일)	12일(월)	13일(화)	16일(금)	17일(토)	18일(일)	19일(월)	20일(화)	22일(목)	24일(토)
쇼트트랙 남 1500m 결승	바이애슬론 남자 스프린트 10km 귀화 티모페이 랍신	피겨 남 싱글 차준환 여 최다빈·김하늘	쇼트트랙 여자 500m 심석희·최민정	스켈레톤 윤성빈 첫 금 도전	쇼트트랙 여 1500m·남 1000m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 여자 500m 3연패 도전	봅슬레이 남자 2인승 원윤종·서영우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쇼트트랙 남 500m·여 1000m 계주	빙속 매스타트 이송훈·김보름

쇼트트랙 최민정·심석희 금 예약... 이상화 3연패 달성 주목

한국 메달 후보가 있다

10일 쇼트트랙 남 1500m 첫 메달
16일 윤성빈 스켈레톤 첫 금 도전
바이애슬론 귀화 선수 성적도 관심

역대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선수단을 꾸린 한국은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 등 20개의 메달로 종합순위 4위를 목표로 잡았다.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종합 순위는 물론 금메달 및 총 메달 수에서도 모두 역대 최고 성적이다. 한국에 첫 메달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은 황대현이 출전하는 쇼트트랙 남자 1500m이다. 예선과 결선이 열리는 10일 황대현은 임준, 서이라와 조를 이워 출전해 첫 금메달을 노린다. 이들은 이어진 17일 남자 1000m에 출전해 다시 한번 금빛 질주를 펼친다. 13일에는 여자 여자 쇼트트랙의 최민정과 심석희가 500m에서 첫 메달 사냥에 나선다. 최민정과 심석희는 17일 여자 1500m에서 두번째 메달에 도전한다. 쇼트트랙의 금메달은 22일 3개가 쏟아진다. 남자 500m, 여자 1,000m, 남자 5,000m 계주까지 이어진다. 지난 6차례의 동계올림픽 여자 계주에서 5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여자 3,000m 계주는 20일에 열린다. 한국이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단 26개의 금메달

중 21개를 쇼트트랙에서 쓸어 담았다. 이번에도 쇼트트랙에서 금 3개나 4개를 목에 걸어야 종합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송훈과 김보름은 폐막 하루 전날인 24일 남녀 매스타트에서 금빛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빙속 여제' 이상화는 14일 일본의 에이스인 고다이라 나오와 한·일 자존심 대결을 펼친다. 이상화가 이번에 금메달을 따낸다면 2010년 밴쿠버, 2014년 소치 대회에서 이어 여자 500m에서 아시아 최초 올림픽 3연패를 기록한다. 바이애슬론 남자 스프린트 10km에 출전하는 러시아 출신 귀화선수 티모페이 랍신이 설상 종목 사상 한국의 첫 메달을 노린다. '코리아 아이언맨' 윤성빈은 16일 라이벌 마르티스 두쿠르스(라트비아)와 피할 수 없는 승부를 펼친다. 올림픽을 앞둔 7차례의 월드컵에서도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를 차지하며 경쟁 선수들과 비교해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였던 만큼 한국 스켈레톤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조심히 점쳐본다. 개막식 기수로 선정된 봅슬레이의 '간판' 원윤종·서영우 조의 메달 소식은 19일에 들릴 전망이다. 설매 종목의 불모지인 한국에서 고군분투하던 두 선수는 소치 대회에서 18위에 오르며 가능성을 보였다. 2015-2016 시즌에선 월드컵 1, 2차 대회에서 연속으로 동메달을 따며 기대감을 높였다. 홈 트랙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다면 윤성빈과 함께 설매 신화를 창조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오후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스피드스케이팅에 출전하는 이송훈 등 한국 대표팀이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진수기자 jeans@